교회 소식 Announcements

1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님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2 추수감사주일 Thanksgiving Sunday

1)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추수감사의 기쁨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목장별로)이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3)추수감사예배 강단장식을 위해 도네이션 해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 11월 선교헌금주일

다음 주일(11/29) 선교헌금 주일입니다. 선교헌금을 작정하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7 예산위원회 (11/29)

내년도 예산을 의논하기 위한 모임을 11/29 (주일) 오후 1시에 진행하겠습니다.
2027 예산제직회(12/6), 2027 예산공동의회(12/13)

5 소그룹 성경공부 개강

1) 토요아침반 (7:00) : 12/5(토) 부터
2) 주일오전반 (9:30) : 12/6(주) 부터

6 교우동정

1) 출타 : 이제시카
2)생일 : 김국태(11/25)
3)환우들과 장기결석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비전 Church Vision

샬롬의 공동체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안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하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넘어 하나됨을 경험하며, 삶의 참된 기쁨과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 만나는 곳, 그곳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 새소망교회는 샬롬의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준
시무장로	박승훈
은퇴장로	이병철 김승배
유초등부	준비중
예배반주	전지원

후원 선교사 및 단체

강태윤 선교사	팔레스타인
권오병 선교사	캄보디아
이성수 선교사	멕시코
밀알선교단	장애인사역
문서선교	기드온, 크리스천타임즈



"감사"라는 갈림길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나병에 걸린 열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병 때문에 가족과 이웃에게서 떨어져 외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 사람은 아직 병이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가는 도중에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길이 갈라졌습니다. 아홉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치유라는 선물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에게는 병이 나은 기쁨도 컸지만, 자신을 고쳐 주신 예수님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우리의 감사에도 두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머무는 감사입니다. 건강을 얻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잊고 다시 자기 일에만 바빠집니다.

두 번째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감사입니다. 받은 복을 기뻐하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받은 선물만 가지고 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감사는 받은 선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 사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 하나님 그 분을 기뻐하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성준 목사

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담임목사 김성준

2820 Lassier Rd. Ste. C150, Marietta, GA 30062
(770) 579-3546 www.atnewhope.org
해외한인장로회(KPCA) 동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주일예배순서

인도: 김성준 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입례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주의 은혜라(복음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301)	다같이
기도		박승훈 장로
성경봉독	누가복음 17;11-19	인도자
설교	'감사'라는 갈림길	인도자
특별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장로님 일동
+봉헌		김성준 목사
+축도		김성준 목사
환영과 교회소식		인도자

+ 표는 일어서서 드립니다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시)

인도 : 김성준 목사

성경본문 로마서 15:5-7 **설교제목** 사도 바울의 기도 (5)

예배 담당자 안내

	기도	안내/봉헌	강단헌화	친교
이번주	박승훈	민영기		추수감사친교
다음주	김국태	민선옥		김국태/박미라

설교요약

'감사'라는 갈림길 (누가복음 17:11-19)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귀하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더욱 귀하신 분입니다"

1. 10명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11-14절)

열 명의 나병환자는 병 때문에 사람들과 떨어져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2.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의 방향은 달랐습니다.(15-18절)

열 명 모두 치유의 선물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 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참된 감사는 받은 선물에 머물지 않고,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3. 참된 감사는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19절)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01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02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복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03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감사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설교노트